「朝鮮名婦傳」에 반영된 여성인식

김지연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25년 고려관에서 간행된 「조선명부전」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조선명부전」이 출판된 1920년대는 민족독립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쳤던 3.1운동의 실패로 인한 패배의식이 만연한 시기이다. 이후 더욱 강화된 일제의 규제 속에서 왜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여성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이다.

우리 나라는 원만한 근대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였다. 봉건적 지배이념과 근대사회로의 발전 욕구는 사회전반에 위기감을 형성하였고 여기에 일제의 국권침탈 의도가 가시화되면서 국권수호를 위한 민족자강운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출판계에서는 신식 활자가 도입되면서 고소설을 신식활자에 담아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흥미위주의 중국번안소설과 판소리 개작소설이 주로 간행되었던 1910년대의 출판경향과는 대조적으로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역사적 실존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전기적' 역사소설이 주로 출판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판된 것이 「조선명부전」이다.

이 작품은 이 시기 대부분의 역사소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인물전기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모두 10명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이 작품은 여러 인물을 한 책에 묶는 '열전' 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각각의 인물 앞에 활약상을 요약하는 별칭을 더해 명명하는 특징을 지닌

다. 인물 개개인에게 주어진 벌칭이 '훔륭한 여성'을 규정하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항목은 대부분 이전의 여성교훈서에 등장하는 것이지만 공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능력 발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정치인 혹은 예술가로서의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개화기 이후 진행되어온 여성교육과 여권신장에 대한 관심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고, 전통적 서사를 계승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개방적이고 진전된 인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조선명부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조선명부전, 교훈서, 구활자본, 여성인식

1. 머리말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근대전환기 혹은 개화기는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혼재로 인한 불안감과 국권 상실에 대한 민족적 위기감이 팽배했던 시기이다. 갑오경장을 계기로 시작된 계몽운동 · 문화운동은 1905년 이후 국문학 작품에 반영되어, 이 시기의 국문학계에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전통적 문학양식과 신교육을 받고 돌아온 유학파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문학 양식이 동시에 존재하며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의 계승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환기 사회의 면모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고소설을 서구의 신식 인쇄기술로 출판하고, 이를 전국규모의 서적상을 통해 대규모로 유통되었던 구활자본 작품이다.

서양식 인쇄 문화의 도입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鉛活字인 舊活字는 우리 나라의 근대전환기를 대표하는 인쇄형태이다.[1] 1910년~1920년대

1) 서지학에서 근대적 인쇄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의 활자들을 '古活字'라 부르는 것을 감안하여 이 시기 출판물을 '활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으나, 논자는 구활자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전환 지점에 위치한 시기에 많이 사용되다가 1930년

활발하게 출판되었던 구활자본 고소설은 '이야기책 · 딱지본 · 육전소설' 등으로 불리웠는데, 이는 근대적 인쇄 기술과 상업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고소설 출판방식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구활자본은 짧은 제작 기간과 저렴한 제작 비용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방각본 시장을 잠식하며 성장하였고, 1915년 방각본 고소설 작품을 구활자본으로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1920년대 후반까지 출판물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반봉건 문명개화의 기치를 세운 신소설 작품이 신문연재를 통해 크게 유행하였다. 1906년 『만세보』에 연재되었던 「血의淚」는 1907년 단행본으로 다시 발간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고, 이후 「鬼의聲」(1907), 「銀世界」(1908), 이해조의 「鬢上雪」(1908), 「紅桃花」(상 1908, 하 1910), 「驅魔劍」(1908), 「自由鐘」(1910) 등 미신타파와 처첩갈등 등의 잘못된 구습을 비판하고 문명개화를 주창하는 작품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당시의 신문들은 신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신소설을 이용할 만큼 신소설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고 독자들은 많은 부분 고소설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신소설 양식에 익숙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천도교계의 신문인 『만세보』가 경영난으로 폐간되자 이완용이 그와 친분이 두터운 이인직을 통해 그 시설을 매수하고 1907년 7월 18일 『대한신문』을 창간을 알리는 광고를 실은 『황성신문』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本報ᄂᆞᆫ 國民의 知識을 開ᄒᆞ며 國家의 公益을 計ᄒᆞ야 創設ᄒᆞᆷ인ᄃᆡ 本月十八日붓터(陰六月初九日)發刊. 本報ᄂᆞᆫ 國漢文을 交用ᄒᆞᄃᆡ 漢字傍에 國文을 附ᄒᆞ야 國文만 知ᄒᆞᄂᆞᆫ 者도 漢文의 意義ᄭᅡ지 解得ᄒᆞ도록 言文一致의 文法을 專用. 本報ᄂᆞᆫ 堂堂ᄒᆞᆫ 獨立新聞으로 一般社會上 公益을 唱ᄒᆞ야 同胞의 平等博愛 不覇獨立의 精神을 喚發. 本報ᄂᆞᆫ 人心世態를 活畫ᄒᆞᄂᆞᆫ 新小說을 每日 續載ᄒᆞᆯ터이온ᄃᆡ 小說作家ᄂᆞᆫ 血의淚와 鬼의聲를 著作ᄒᆞ던 人氏. 右의 四項外에 敏活情實ᄒᆞᆫ 探訪記事도 諸君子에게 報道ᄒᆞᆯ터이오니 陸續購覽ᄒᆞ심을 望ᄒᆞ오

대 이후 더욱 정교한 현대 활자의 등장으로 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구활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위의 기사를 통해 당대의 신문은 구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신소설을 싣고,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언문일치를 추구하는[2]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 소설은 어느 문학 장르보다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그것을 상업적 혹은 그밖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될 만큼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신문 연재 소설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 작가인 이해조가 고소설을 '음탕, 처량, 허황' 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판소리계 고소설을 개작한 여러 작품을 발표하고, 그것이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문의 독자를 비롯한 대중에게는 아직까지 고소설이 더 익숙한 장르로 수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신문연재 신소설 작품들이 단행본으로 간행될 때에는 구활자를 사용하고 있어 구활자의 인쇄 방식이 20세기 초 우리 출판물의 대표적인 인쇄 형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활자로 출판된 대다수의 고소설 작품들은 과거에 존재하고 있던 작품을 압축 · 변개하였기 때문에 여타의 이본과 뚜렷이 변별되는 특성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제까지의 국문학 연구자에서 구활자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미루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활자본으로 출판된 작품 가운데 새롭게 창작된, 신작 고소설로 불리우는 작품들은 '~傳' 이라는 표제명을 가지면서 이전에 존재하던 인물서사의 전통을 망라하여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는[3] 점에서 주목된다. 신작 고소설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

2) 당시의 신문이 국한문을 혼용하면서도 국문을 우선 표기하였고, 나아가서는 순국문 표기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순국문은 그 뜻을 해득하기 쉽다는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지식의 대중화라는 시대적 목적의식과 소설 독자의 저변 확대라는 상업적 이익에 부합하는 표기였다. 1907년 9월 4일 『대한미일신보』에 게재된 「羅蘭夫人傳」의 광고에서는 '이 쇼셜은 슌국문으로 미우 주미있게 문들어' 라는 서두와 '이국ᄒᆞᄂᆞᆫ 유지ᄒᆞᆫ 남주와 부인은 만히들 사셔보시오' 란 끝구절을 통해 순국문을 사용한 소설 출판이 사회개량의 선도적 역할뿐만 아니라 독자대중의 소비적 측면을 고려한 상업적 기반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글은 민족 자긍심 표현의 매개체로 인식하면서 한글을 위주로 한 표기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국어학계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징은 기존 서사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면서도 독자에게 익숙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이야기 방식을 사용해 기록에 대한 거부감이나 의심 없이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지녔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활자본으로 새롭게 창작·간행된 작품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역사상의 사건이나 남성 위인과 관련된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은 史實的 성격이 강화되면서 소설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가 문제되기도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향의 작품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인물전기의 형태를 보이는 작품을 대상으로 삼는다. 일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작품은 1919년 대창서원과 보급서관에서 간행한 「김씨열행록」, 1925년 張道斌에 의해 고려관에서 간행된 「조선명부전」, 1934년 재전당서포에서 간행한 「(만고효녀)박효랑전」이다.[4] 그러나 「김씨열행록」과 「박효랑전」은 조선의 지배적인 유교이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전의 여성전기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전의 여성전기물과 변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조선명부전」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2. 「조선명부전」 출판의 사회·문학적 배경

소설이 등장한 이후로 소설의 효용성에 대한 찬반논의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조선전기 소설을 배격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유학자들은 소

3) 졸고, 구활자본 역사영웅소설 연구(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가운데 Ⅱ-2. 전통적 서사양식의 계승 참조.

4) 이외에 「(만고의열)신숙주부인전」이 있는데, 이 작품은 세창서관에서 1952년 간행된 이본만이 확인되었다. 세창서관에서 1951, 1952, 1961, 1962년 간행된 작품들이 대개 이전에 다른 서적상에서 찍은 활판을 그대로 인쇄하고 판권만을 고친 예로 미루어 앞의 작품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최원식이 『한국근대문학사론』의 「이해조 문학연구」(창작사, 1986)에서 이 작품을 이해조의 신소설 작품으로 소개한 바 있는 것으로 미루어 대상 작품에서 제외한다.

설이 '怪誕, 慌誕' 하고 남녀의 풍정을 다루어 '淫褻' 하기 때문에 풍속 교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반면에 소설의 폐해를 주장하는 논리에 대항하여 소설의 부분적인 효용성을 옹호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출발하였던 소설의 효용 논의는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勸懲을 통한 '世敎' 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옥련몽」의 서문에서 남정의는 부부의 애정과 여자의 도리와 가정의 풍속 습관을 그리는 것이 세사의 모범이 되고자 하는 지은이의 의도와 관계된다며 남녀간의 애정을 다루는 것을 세사를 곡진하게 그려내려는 '人情物態' 의 정신을 반영한 점과 그로 인한 도덕적 효용을 강조하고 있다.[5]

소설의 효용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진다.

> 기자왈 소설이라 하는 것은 매양 빙공착영으로 인정에 맛도록 편집하여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 중, 그와 방불한 사람과 방불한 사실이 있고 보면 애독하시는 열위 · 부인 · 신사의 진진한 재미가 일층 더 생길 것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실을 경계하는 좋은 영향도 없지 아니할지라. 고로 본 기자는 이 소설을 기록하매 스스로 그 재미와 그 영향이 있음을 바라고 또 바라노라[6]

위의 인용에서 이해조는 소설의 본질을 '憑空繫影' 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인정에 맛도록' 편집해야 독자들을 교화하는 소설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소설의 가치를 재미와 그 사회적 영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의 교화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김기진에 이르러 더욱 발전된다. 김기진은 사상 투쟁의 도구로서 소설의 기능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논의는 소설이 지닌 대중적 성격에 기반하고 있었다.

---

5) 이 최의 원봉은 ᄂᆞ의 본싱 션됴부 담초공의 져슐ᄒᆞ신 바ㅣ니 옥년화 한가지를 비러 됴션 고금의 부부의 이뎡과 녀ᄌᆞ도리와 가뎡의 깁흔 풍속 습관을 그려셔 세샹의 부부쳡으로 아름다운 모범을 엇게ᄒᆞᆫ지라

6) 이해조, 「화의혈」후기, 『한국신소설전집』2(을유문화사, 1969), p.412.

大槪 누구의 손으로 팔리어 가느냐 하면 學生보다도 婦人보다도 農民과 그리고는 勞動者에게로 팔리어 간다. 장거리나 큰 길거리에서 行商人이 벌려 노흔 이싸위 冊이들은 좁쌀되나 北魚ㅅ 마리나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꾼, 卽 農民이 사가는 것이 대부분이다.[7]

구소설은 가뎡 부인네에게 뿐이 아니라 농촌 · 공장으로 우리들보담 몬저 들어가서 잇지 아니한가[8]

고소설이 농민과 노동자와 같은 무산계급에게까지 널리 수용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지적은 소설 자체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보다는 소설이 지닌 정치 · 사회적 효용성을 중시하고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소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설개혁론으로 발전되었다. 소설이 국민을 계몽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공유되면서 소설의 교훈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개혁론자들의 소설인식은 현실의 문제점을 소설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의 소설 인식과는 구별된다. 조선후기의 소설인식이 봉건적 이데올로기의 구현을 위해 소설을 이용했다면 소설개혁론자들은 유교적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문명의 개화와 국민의 각성에 소설을 이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애국계몽기 소설개혁론자들은 고소설이 지닌 허황함을 비판하면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거나 혹은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소설창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매우 커다란 인식변화라 하겠다.

애국계몽기라 불리우는 1900년대 초반 구국적인 역사기록이나 영웅적 인물의 생애를 그리는 '傳記物'이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 소개되고 새로이 창작되는 것도 모두 이러한 소설관과 연관되어 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의 개신유학자들이 봉건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던 고소설에 대한 반성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애국계몽기의 역사전기물은 거기에 담긴 실제

7) 김기진, 대중소설론, 『동아일보』, 1929. 4. 17.
8) H.K.生, 가뎡과 구소설, 『동아일보』, 1929, 4, 2

사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모범으로 하여 당면한 현실적 위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촉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응하여 민족의 자주독립을 견지함으로써 민족적 역량을 배양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는 투철한 민족의식이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3. 「朝鮮名婦傳」의 체제와 여성인식

1910년대 구활자본 고소설의 출판은 이해조의 「獄中花」로 대표되는 판소리 개작소설[9], 「玉樓夢」 등의 몽자류 소설과 「郭汾陽傳」 등 중국 역사의 실존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중국 번역 · 번안소설, 「劉忠烈傳」 등의 군담소설이 주류를 이루며, 전체 311종의 작품 가운데 201종에 달하는 작품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출판되었다. 이 시기에 구활자로 간행된 고소설 가운데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謝氏南征記」 「春香傳」 「淑香傳」 「鄭壽景傳」 등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대부분의 작품은 필사본 혹은 방각본 작품을 활자만 바꾸어 간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른 이본과의 변별성을 찾기 힘들다.

1919년을 기점으로 구활자본 고소설의 간행은 급격한 감소를 보여 전체 311종 가운데 81종이 간행된다. 이 시기 고소설 간행의 특징은 '傳記的 형식'[10]의 역사소설의 유행으로 집약할 수 있다. 「忠武公李舜臣實記」 「乙支文德傳」 「蓋蘇文傳」 「姜邯贊傳」 「朝鮮李太王傳」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소설은 우리 나라 역사상에 실존했던 위인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편년적으로

9) 구활자본 고소설의 성행은 신문으로 연재되었던 「옥중화」가 博文書館에서 발행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박문서관본 「옥중화」는 17판 이상을 찍어냈고, 박문서관본 외의 이본도 6종이나 된다. 박문서관은 이후 이해조의 「江上蓮」을 1923년까지 12판, 「兎의 肝」을 1917년까지 4판, 「燕의 脚」을 1922년까지 5판을 발행하는 상업적 성공을 보인다.

10) 전기적 형식이란 우리 나라의 인물 서사 방식인 傳 · 行狀 · 墓碑銘 · 墓碣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의 일대기적 서사를 통칭한다.

서술하는 형태의 작품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은 필사본이나 방각본으로 전해오는 것이 없고, 대부분 저작자가 밝혀져 있으므로 신작이라 할 수 있으며, 해방 후에도 계속 출판되었다.

역사소설의 유행과 함께 등장한 여성을 주인공의 작품은 앞에서 소개한 「김씨열힝록」「조선명부전」「박효랑전」의 세 작품이다. 그 가운데에서 「김씨열힝록」은 김씨부인이 혼인 후에 겪게 되는 孝와 烈에 얽힌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주인공 김씨의 실존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당대의 역사소설과는 차이가 있다. 김씨부인이 초야에 남편을 잃고 자신의 무죄와 신랑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男服으로 수사에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송사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당한 일에 맞서 죽음을 택하는 형식의 이전의 열녀 이야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박효랑전」은 숙종 35년(1709) 星州에서 죽산 박씨와 순천 박씨가 山訟을 벌여, 끝내 살인까지 했던 실화로 이에 관한 기록은 실록 뿐만 아니라 李光庭의 「昔有蘇不韋行 40章」, 傳 작품인 南有容의 「孝子朴氏傳」, 安錫儆의 「朴孝娘傳」, 국문소설인 呂八擧의 「박효랑전」 등 여러 문헌에 남아 있다. 구활자본 「박효랑전」은 작품의 마지막에 '동방효렬편 안동 눌언 이광정 선생 문집 중 박효랑조재문 박효랑본손 부록편' 의 기록을 옮긴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역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송사의 해결 과정이 사건 전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김씨열힝록」과 공통점을 보인다. 이 두 작품은 모두 유교적 지배이념이었던 孝와 烈을 칭송하는 전통적인 여성전기[11]를 계승하는 동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장화홍련전」「황새결송」 등의 송사소설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전기를 계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조선명부전」은 여러 인물의 특정한 면모를 강조한 '列傳' 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조선명부전」은 大正 4년(1925) 2월 24일 경성의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하고 고려관에서 발행한 작품으로 저작겸 발행자는 장도빈[12]이다.

11) 김미란의 논의를 수용하여 여성의 생애를 기록한 글을 총칭한다.(김미란, 「여성전기의 서술의도 연구」, 『한국고전여성연구』제3집, 2001.)

총28면으로 국한문을 혼용하였고, 문장내에서는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장이 바뀔 때에 띄어쓰기가 되고, 문단이 바뀔 때와 대화가 삽입되는 경우 줄을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작품의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女傑 — 召西奴 — 1
良妻 — 閼英 — 5
賢母 — 萬明 — 7
女政治家 — 善德大王 — 10
愛國婦人 — 智照 — 16
信女 — 薛氏 — 19
烈女 — 都刷夫人 — 21
孝女 — 知恩 — 24
女詩人 — 許蘭雪軒 — 27
女書伯 — 申師任堂 — 27

소서노, 만명, 설씨녀의 이야기는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서노는 백제 시조인 온조왕의 어머니로 북부여에서 도망나온 주몽과 결혼하였으나 훗날 찾아온 유리에게 왕위를 빼앗긴 비류와 온조를 따라 남하하여 백제를 세우도록 한 인물로 「백제본기」의 시조 온조왕조에 소개되고 있다. 「조선명부전」에서는 이러한 소서노를 단순히 백제 시조의 어머니로 기록

12) 장도빈은 이외에도 「위인 원효」(신문관, 1917), 「동명왕실기」(한성도서주식회사, 1921), 「동명왕」(고려관, 1925), 「원효」(고려관, 1925), 「개소문」(고려관, 1925), 「이순신전」(고려관, 1925), 「을지문덕전」(고려관, 1925), 「조선위인전」(고려관, 1925), 「조선영웅전」(고려관, 1925), 「김덕령전」(덕흥서림, 1926), 「(용맹무쌍)남이장군실긔」(덕흥서림, 1926), 「강감찬전」(고려관, 1926), 「발해 태조」(고려관, 1926), 「을지문덕전쟁긔」(고려관, 1926), 「(갑오)동학란과 전봉준」(덕흥서림, 1926), 「죠션티죠대왕젼」(덕흥서림, 1926), 「대원군과 명성왕후」(덕흥서림, 1927), 「임오군란과 갑신정변」(덕흥서림, 1927), 「한국말년사」(덕흥서림) 등의 작품을 남겼다. 구활자본 고소설의 판권에 표기된 저작겸 발행자를 현대적 의미의 작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짧은 시기 집중적으로 많은 작품을 간행하였다는 점도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한 것이 아니라 '女傑'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명부전」에 따르면 소서노는 청춘 과부가 되어 아버지를 의탁하여 살게 되지만 '면밀한 治産策'과 '근검한 殖利業'으로 저축을 거듭하여 졸본 제일의 재산가를 이루었고, 이러한 재산을 바탕으로 난을 피해 내려온 주몽의 면모를 보고 혼인을 허락하고, 동명왕이 왕으로 즉위하여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고 도읍을 정할 때 자신이 저축해 놓은 재산을 사용해 왕을 보좌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소서노는 19년동안 두 아들을 낳아 양육하며 동명왕의 왕비 역할 충실히 해내지만 모친과 함께 찾아온 유리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해가 닥칠까 두려워 두 아들과 남하하고 특히 온조왕이 백제를 건국하는데 지도와 협조를 보태었다. 청상과부라는 불완전한 존재이었지만 집안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면모가 소서노의 '女傑스러움'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만명의 기사는 「열전」1 김유신조에 기록되어 있다. 길에서 만난 서현을 따라 집에서 도망하여 삼국통일을 이끈 명장 김유신을 낳은 점이 강조되고 있다. 「조선명부전」에서는 만명과 서현의 결혼담을 자세히 소개한 뒤, 김유신을 양육할 당시의 일화를 예로 현명한 어머니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며, 자녀의 이야기도 김유신에 국한되지 않고 차자인 欽純과 두 명의 딸을 함께 소개하며 김유신 일가가 모두 애국희생을 표방할 수 있었던 것은 만명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이 만명과 서현의 만남을 요약적으로 다루고 김유신의 활약상을 소개하기 위하여 만명부인이 꾼 김유신의 태몽을 소개하고 태어날 때의 이적을 이야기한 것에 비해 「조선명부전」의 현모 만명은 서현과 만명의 결혼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길에서 만난 서현과 아버지의 허락없이 혼인을 감행하고, 서현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별채에서 도망나오는 만명의 이야기가 기생 천관의 집을 오가는 김유신을 바로잡은 일화 못지않게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신녀 설씨와 열녀 도미부인 효녀 지은의 기사는 『삼국사기』열전 제8에 나란히 전한다.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 부역나간 가실을 6년 동안 기다리

며 주변의 유혹 속에서도 약속을 지켰던 설씨녀의 이야기와 자신을 노비로 팔아 홀어머니를 봉양한 지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개루왕의 갖은 회유에도 자신을 지켰던 도미부인의 이야기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三國遺事』「紀異」신라시조 혁거세왕조와 「효선」 빈녀양모조에 각기 전하는 알영과 지은의 이야기도 『삼국유사』의 기록과 대동소이하다.

이렇듯 「조선명부전」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 인물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전의 기록물들이 존재하며, 그것을 참고하여 창작되었음을 내용비교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기존의 기록물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앞에서 살핀 내용비교를 차치하고라도 제목만을 뽑아놓은 목차상으로도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인물의 성격에 따른 명명이다. '여걸, 양처, 현모, 여정치가, 애국부인, 신녀, 열녀, 효녀, 여시인, 여화백' 으로 인물명 앞에 덧붙여진 명칭은 「조선명부전」이 제시하고 있는 '名婦의 조건' 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질을 항목화하는 태도는 『女四書』로 대표되는 여성 교훈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전하는 대표적인 여성교훈서는 「女戒」「女論語」「內訓」「女範捷錄」을 담고 있는 『女四書』, 宋時烈의 「戒女書」, 昭惠王后 韓氏의 「內訓」, 宣禧宮 映嬪李氏의 「女範」 등이다. 이들 교훈서에서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지켜야할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言行, 孝道, 昏禮, 夫婦, 母儀, 廉儉, 和睦' 등 봉건시대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미덕을 중국고사의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역할을 '감추어진 영역' 으로서의 가정에 국한되며 남편을 성공시키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시부모를 공양함으로써 나아가 가문을 부흥시키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되며, 여성의 경제적 능력도 남편을 대신해 혹은 보조해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명부전」에서 제시한 '양처, 현모, 신녀, 효녀, 열녀' 의 항목은 이전의 교훈서에 강조된 바람직한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여걸, 여정치가, 애국부인, 여시인, 여화백'

의 항목은 봉건사회의 전통적인 여성 역할과 구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여걸' 이라는 항목이 붙여진 것은 앞에서 살핀 백제 온조왕의 어머니 소서왕에게이다. 소서노는 청상과부의 몸으로 친정아버지에게 의존해서 지내게 되지만 뛰어난 경제적 수완으로 나라제일의 부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주몽과의 결혼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개 후에 남편감의 자질을 살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소서노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룩한 경제력으로 남편과 아들의 건국을 도우며 두 번이나 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소서노의 적극적 성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良妻' 나 '賢母' 보다는 '女傑' 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정치가' 라 명명된 것은 신라의 선덕여왕에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삼국유사』기이편의 선덕왕지기삼사와 동일하지만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현명한 국왕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에 여성 교훈서에서 여성의 지혜로움을 강조하는 경우 그것이 가족 친지와의 화목함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선덕여왕의 경우 우리 나라의 역사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의 유일한 여성 국왕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라 보인다.[13] 비록 선덕여왕의 지혜로움이 가정내에서 요구되었던 여성의 덕목이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긍정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었다기보다 선덕여왕의 개인적인 예로 한정되어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 충실히 감당한 여성 정치인의 존재를 소개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마련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다.

---

13) 여성전기 가운데 여성이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했는가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한 기록들이 있기는 하다.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사건을 둘러싼 여성의 처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李明漢이 쓴 草溪鄭氏에 대한 기록과 張維가 기록한 令人金氏에 대한 기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들은 모두 당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남자들이 공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성이 가정 내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또 그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김미란, 앞의 글, p.88)

'애국부인' 은 김유신의 처인 지소부인에게 부여된 별칭이다. 지소부인의 일화는 『삼국사기』 열전 제3 김유신조에 함께 전한다. 지소부인은 김춘추의 딸로 어린 나이에 노인이 된 김유신과 결혼하였지만 김유신의 뜻을 잘 받들어 삼국통일의 선봉이 되도록 내조하였다. 지소부인에게 애국부인이라는 호칭이 덧붙게 된 계기는 김유신이 전장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화랑의 계율을 어기고 패전해 돌아온 아들 원술과의 일화 때문이다. 지소부인은 평소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김유신의 뜻에 동조해 김유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불충한 아들을 질책하고 결국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앞서 국가와 임금에 대한 충성과 의리라는 大義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조선명부전」를 여타의 교훈서와 변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여시인' 과 '여화백' 이라는 항목으로 소개된 허난설헌과 신사임당이다. 이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중시되었던 많은 여성 교훈서의 바람직한 여성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성의 면모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 여성 예술가에 대한 소개이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소략하여 일화나 작품을 소개하기보다는 그들의 존재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 점이 아쉽다. 그러나 작가는 이들을 '명부' 의 대열에 올려놓으면서 그들의 가정적 불행을 문제삼지 않고 여성에 대한 구속이 심하던 조선시대에 예술에 대한 천부적 자질로 이름을 떨친 두 사람에 대한 칭송을 마다하지 않는다. 신사임당이 부군인 이원수와 불화하여 '家庭의 樂이 업섯' 다는 점이 신사임당의 예술적 자질을 평가하는데 부정적인 잣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여성의 능력에 대한 개방적 시각을 가진 경우가 이전의 여성 교훈서에서 찾아지기도 한다. 중국에서 수입된 「女範捷錄」은 '后德, 母儀, 孝行, 貞烈, 忠義, 慈愛, 秉禮, 智慧, 勤儉篇' 에 덧붙여 '才德篇' 을 둠으로써 재능과 학식을 갖춘 여성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여범첩록」과의 관련 속에서 창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선희궁의 「女範」[14]의 경우에는

14) 동경대학교 도서관 南葵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선희궁 친필 필사본으로, 1977년 한국고전간행회에서 영인 · 출판하였다. 선희궁이 직접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녈녀'(烈女)와 '정녀'(貞女)에 앞에 '변녀'(辯女)와 '문녀'(文女), '무녀'(武女)의 항목을 만듦으로써 여성의 개성적 능력 발휘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변녀'에서는 남성들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요구에 맞서 논리적 설득을 함으로써 지아비를 훌륭하게 보필한 8명의 인물이 소개되었고, '문녀'에서는 글재주가 있었던 7명의 여성을, '무녀'에서는 변방 오랑캐와의 싸움에 참가하였던 세부인과 목난녀를 소개하고 있다. 계기야 어찌되었든간에 여성의 몸으로 변방 오랑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혁혁한 공을 세워 사당을 지어 봉안되었다는 인물의 예는 남성의 영역으로 생각되던 공적 영역에서 성공을 거둔 여성의 소개를 통해 여성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이룩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타의 여성 교훈서에 등장하는 예화와 마찬가지로 여범류에 소개된 여성은 모두 중국의 역사상 인물이어서 해설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중국의 고사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조선명부전」은 우리 역사상의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독자와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후손들은 항상 선조를 거울삼아 자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를 얻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 선정은 민족의 시련기라는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회 구성원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맺음말

「조선명부전」이 간행된 1920년대는 3.1운동의 실패 이후 강화된 일제의 규제로 인해 출판 저작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시기이다. 1910년 불평등 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은 그동안의 문명개화와 민족운동의 성과를 결집한 3.1운동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

에서 수입된 여성 교훈서나 여타의 교훈서와는 구별되는 점이 많아 앞으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무산되었고 그 파장은 교묘해진 일제의 규제로 되돌아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많은 이들이 주목한 것이 '여성'이다. 전쟁과 관련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동안 우리의 역사와 기록 문학 속에서 여성의 자아 성취에 주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승리한 자, 용맹있는 자의 무대인 전쟁에서 개개인의 개성은 무시되고, 여성은 전쟁터로 나가는 남성의 보조물이거나, 전쟁에 승리한 남성에 대한 포상의 기능으로 그 운신의 폭이 한정되는 것이다. 조선후기 온 국토를 피폐화시킨 기나긴 전쟁 속에서 개성적 자아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국가를 지탱해 나가기 위한 이념만이 생경하게 남아있던 우리 민족의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권을 상실한 채, 민족의 역량을 결집했던 3.1운동이 실패한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특히 여성의 능력 발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는 민족부흥을 통한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개화기 민족주의자들의 각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제가 국권침략의 의도를 드러내면서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자강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고 , 이는 여성의 계몽과 사회참여 없이는 국가의 힘을 키우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모아진다.

> 詳考하건대 여성 해방문제와 女性啓蒙은 곧 國家의 資源化와 直結되는 것이다. 또 여성의 人格을 존중하는 일은 바로 全人間으로서의 그의 心性을 開發하는 문제이니 實로 人間의 탐구로 新史觀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다. … 敎育은 곧 女性의 啓蒙과 社會參與의 가장 빠른 길이다.[15]

민족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의 힘이 필요하고, 여성이 힘을 키워 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문명개화 되어야 한다는

15) 이종일, 『默菴備忘錄』, 1899년 5월 31일.

민족주의자들의 생각은 여성의 교육을 통한 민족 부흥 운동은 여성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의 근대의식의 보급과 성장에 강력한 역할을 하였던 독립협회는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통해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일깨우고 그 탈출의 방법으로 여성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조선 부인네들도 차차 학문이 놉하지고 지식이 널너지면 부인의 권리가 사나히 권리와 갓한줄 알고 무리한 사나희들을 제어하난 방법을 알리니 그러기에 우리난 부인네들씌 권하노니 아무쪼록 학문을 놉히 배하 사나희들보다 행실도 더 놉고 지식도 더 널펴 부인의 권리를 찾고 어리석고 무리한 사나희들을 교육하기 바라노라.[16]

이렇게 마련된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많은 여성이 국권회복을 위한 무력투쟁인 3.1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여성교육을 실시하면서 가장 뚜렷하게 변화한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대한 시각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봉건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을 보필하고 사적 영역의 평안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인물로 규정되었던 것에 비해 민족의 힘으로 여성의 능력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공적영역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활동할 것을 제안받게 된 것이다.

「조선명부전」에 나타난 여성의 능력발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당대의 많은 작품 속에서 여성은 여전히 '모성'으로 존재하고, 민족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민족적 지도자를 양육하는 '민족의 어머니'로서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선명부전」에서 보여준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전통적 여성전기에서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경직되고 이념화된 가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능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의

16) 논설, 『독립신문』, 1896년 4월 21일.

발현에 주목한 점은 미약하나마 개성적이고 다양화된 세계를 인정하는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필자 : 목원대 강사

참고문헌

김씨열힝록, 대창서원 · 보급서관, 1919.

박효랑전, 재전당서포, 1931.

조선명부전, 고려관, 1925.

여사서, 이숙인 역주, 여이연, 2003.

女範, 한국고전자료총서, 대제각, 1977.

內訓 · 戒女書, 명문당, 1994.

권순긍,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사, 2000.

김경미, 조선후기 소설론 연구, 이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김미란, 여성전기의 서술의도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3집, 2001.

김지연, 조선후기의 소설 인식, 『지역학논집』제3집, 숙명여대 지역학연구소, 1999.

김지연, 구활자본 역사영웅소설 연구, 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 강좌』하, 창작과비평사, 1995.

신영주, 『조선시대 송사소설 연구』, 신구문화사, 2002.

이윤희, 『한국민족주의와 여성운동』, 신서원, 1995.

이정옥, 모성신화, 여성의 또 다른 억압 기제, 『여성문학연구』제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과 방각본의 관련양상,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여대 출판부, 2002.

정병헌, 강릉지역설화의 여성 형상, 『고전문학과 교육』제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

최원식, 『한국근대문학사론』, 창작사, 1986.

Abstract

A Recognition of Women to be reflected in 「Chosunmyungbujeon」

Kim Ji Yeon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ntroduce 「Chosunmyungbujeon」 (the stories of Korean respectable women) which was pressed by Koryeogwhan in 1925, bring to right its significance.

In the late Chosun Period of 1900s, stronger desire for the moderation formed than any other times. Part of this movement was thought as measure to defend the country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at the time. The novels of the early type-printing books, or Kuhwaljapon-Kososeol were not written as the simple copies of old stories. There were many love stories and historical hero stories that had no previous copy of transcription or xerography and had a lot of distinctive characteristics from the old novels. The heroes of the early type-printing novels were diversified over kings, commanders, loyal retainers, and men of supernatural power of Zen.

「Chosunmyungbujeon」 is a almost solitary instance which gave attention to women, and what is more, it took notice of individual abilities of women. This characteristics was succeed to one of the tradition of a group of women instruction books, especially 「Yeobeom」. The recognition of women to be reflected in the 「Chosunmyungbujeon」 is worth showing open and progressive appreciation of women.

key word : Chosunmyungbujeon, instruction books, recognition of women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